

인간 두뇌 진화의 비밀은 '사회성'

사회성

로빈 던바 등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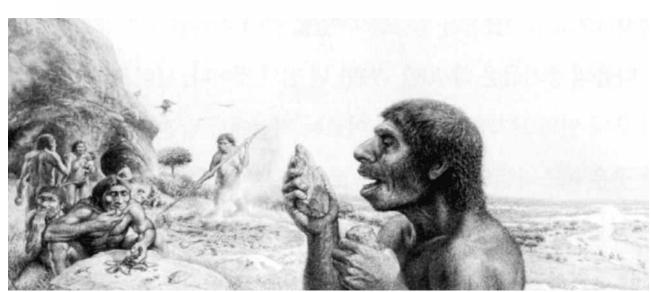
지난 2002년 영 국 학술원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 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뛰 어난 프로젝트 하 나를 선정해 최고 액수의 연구보조

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사회고고학 자(로빈 던바)와 구석기 고고학자(클라 이브 갬블), 진화심리학자(존 가울렛)가 머리를 맞대고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 한 근원적 연구안을 제출해 채택됐다. 이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더욱 완전 하게 이야기하고자 과거와 현재를 탐험' 하려 했다. 마침내 세 학자는 영국학술 원으로부터 7년간 지원을 받으며 '루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최근 출간된 '사회성'(원제 Thinking Big)은 이들이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제 적 연구를 통해 찾아낸 인류 진화의 열 쇠이다. 이 책은 기존 진화서와 달리 고 고학 탐구에 그치지 않고 동물학, 심리 학 등 학문간 통섭을 통해 인류의 진화 를 탐색한다.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 져 나온 때는 700만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침팬지는 지금도 침팬지이지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는 종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겼을까?

이들이 주목한 것은 "진화론적으로 영장류 가족이 창조한 굉장한 발명품" 이라고 표현한 '사회성'(Sociality)이다. AAAAAAA



불은 최소 40만년 전부터,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왔다. 불은 사회적 일상을 연장하고,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게 해 인류가 축소된 소화기관에 비해 큰 뇌를 가지게 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처음북스 제공〉

인간이 '사회성'을 발견한 것은 똑똑하 기 때문이 아니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200만년에 걸쳐 커진 인류의 뇌 크기는 외부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라 기 보다는 확실히 종(種)내에 작동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 반응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좀 더 사회적 무리는 생존에 조 금 더 유리했고, 좀 더 사회적 무리를 유 지하려면 내 의도와 상대방의 의도를 짐 작해야 할 만큼의 정신적으로도 발달해 야 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 점점 뇌는 커졌고, 그에 따른 부수 적 효과로 지금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얻게 된 것이다"고 강조한다.

'뇌 크기와 기본적 사회단위의 크기 사이에 연관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저 자들의 '사회적 뇌 가설' 이론이 흥미 롭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개인의 사회 생활 밑바탕에는 150명의 친구와 가족 들로 이뤄진 사회적 관계망이 깔려있

이들은 "인류를 결속하고 관계망을 구축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최신 첨 단 기술의 화려한 이면에는 오래된 진화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결 론을 맺는다. 앞으로도 인류가 인공지능 지배를 받거나 핵 전쟁같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사회성'을 강화하는 길로 나 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처음북스·1만7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유쾌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된 다. 그녀의 친구, 가족, 남자. 그리고 그 녀가 좋아하는 소설과 영화, 여행 이야 기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애정과 넉넉 한 마음을 전해준다. '방랑자의 틀니', '이불은 평생의 반려입니다', '세탁기', '소공녀와 고기 만두', '슈욱 사라진다'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전공한 저자는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심 리를 깊이있게 묘사한 그림책과 에세이 집을 출간했다. '100만번 산 고양이', '아

〈을유문화사·1만3800원〉

새로 나온 책

▲첫 번째 법칙=텐징 노부 미스터리 시리즈. 스토리는 갑자기 찾아온 여자 '바 바라 맥시'로 인해 시작된다. 그 뒤 벌어지 는 사건들은 얽히고 설켜서 커다란 음모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아이들 살인사건'으 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인간의 끝없 는 욕심과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사건을 이해해 가는 주인공 텐의 내면의 법칙이 어우러져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간다.

〈아름드리미디어·1만3800원〉 ▲사법부=역사학자 한홍구가 대한민 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 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 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 장을 던진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 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 픈 역사 70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돌베개·2만원〉 ▲철학은 뿔이다=헤겔철학을 화두 삼 아 철학자 김상봉, 이진경, 김상환, 이어령 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현재 우리 지식계를 대표하는 이들과 맞서며 저자는 주체와 근대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다. 우리 지식계를 이끌어온 철학에서 가짜 근대화의 논리를 읽어내며, 이제 외부인 놀이를 벗어나 제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북인더갭·1만5500원〉 ▲6일 전쟁 50년의 점령=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을 통해 요르단 강 서안, 골란고원, 가자 지구, 시나이반도를 점령



15







하고 중동의 지도를 영원히 바꾸고자 했 다. 책은 6일전쟁에서 시작되어 50년 가까 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 인 점령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역 사책이다. 전문가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팔레스타인인의 삶 과 이스라엘 점령 체제의 구축·심화 과정, 뉴욕, 오슬로, 카이로 등지에서 펼쳐진 국 제 외교의 현장이 생생하게 재구성된다.

〈니케북스·2만5000원〉

▲기쁨의 건축=건축가 문훈이 설계한 건축물들 가운데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쓴 건축 안내서. 첫 설계작인 포천주택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전국의 건축현장을 누 비며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건축행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난관을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해낸 저자의 사례들 은 건축학도와 건축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제 〈스윙밴드·1만7000원〉

어린이 책

▲나의 첫 번째 세계 지도='왜왜왜?' 어린이 과학책 시리즈. 글로벌 시대에 걸 맞게 어린이들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들 을 담았다. 세계 그림 지도를 보며 세계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고 플랩북으로 구성돼 아이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크레용하우스·2만원〉 ▲아빠! 아빠! 이건 뭘까요?=주위를 둘러보아도 하얀 얼음과 파란 바다뿐인 추운 나라에 작고 빨간 딸기 하나가 동동 떠내려왔다. 아기 펭귄들은 달콤하고 상 큼하고 촉촉한 맛에 반해 온종일 딸기 생 각뿐이었다. 물고기도, 장난감도, 친구들 도 모두 딸기로만 보였다. 결국 아빠 펭귄

라로 떠나게 되는데…. 〈길벗어린이·1만2000원〉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전공

은 아이들을 위해 딸기가 있는 따뜻한 나





O FHAL!

을 소개한다. 〈비룡소·1만2000원〉 ▲커다란 빵 생각=문학동네 동시집 시리즈. '커다란 빵 생각'은 제목 그대로, 트럭만큼 커다란 빵을 구워 그 안에 온몸 을 던져 넣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생생힌 감각적 표현을 통해 그러낸 작품이다. 시 원스러운 드로잉, 디지털로 입혀진 패턴 과 색채의 어울림으로 김개미 시 세계의 독특한 맛을 전한다.

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력 작용

〈문학동네·1만500원〉

너무 애쓰지 않아도 삶은 즐겁고 여유로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노 요코 지음

이 책을 집어든 건 순전히 제목 때문 이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니. 목 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라고 채찍질하 는 시대에, 조금만 나태해도 세상의 낙 오자가 될 거라고 위협하는 시대에, 마 음 속에 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발설하 기 어려운 말을 떡하니 제목으로 삼다니



사노 요코다.

책은 지난 2010년 72세로 세상을 떠 난 사노 요코가 중년에 쓴 에세이로 너

무 애쓰지 않아도 즐겁고 여유로운 그녀 의 삶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1938년생인 지은이는 일본 의 그림책 작가 그녀가 40대 중반에 쓴 글들이니 70년대 로, 지난해 국내 후반 80년대 쓴 에세이지만 지금 읽어도 에서 발매된 '사 충분히 공감이 간다.

는게 뭐라고', '죽 책에 등장하는 솔직한 에피소드들은 는 게 뭐라고'를 사소하지만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한 통해 이름을 알린 다. 입가에 잔잔히 미소가 지어지고 누 군가 등을 다독여 주는 것도 같다. '이 세 상의 괴로운 일들을 충분히 맛보면서 그 현실을 기꺼이 살아온 사람'이 들려주는

등 책에 실린 80여편의 글들은 마음내킬 때 하나씩 꺼내 읽으면 좋을 듯하다.

저씨 우산' 등이 대표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u>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u>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m²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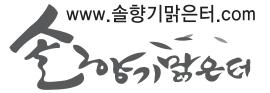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맛의향연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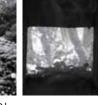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